

[이론 발제]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Oedipus the Rex) - 인간 실존의 의미를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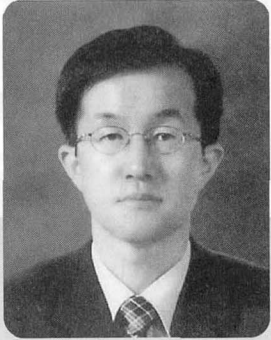
저자 (Authors)	이기원
출처 (Source)	공연과이론 (41), 2011.3, 41-47(7 pages) Performance & Theory (41) , 2011.3, 41-47(7 pages)
발행처 (Publisher)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Performance & the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97888
APA Style	이기원 (2011). [이론 발제]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Oedipus the Rex) - 인간 실존의 의미를 묻다. 공연과이론(41), 41-47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이기원(공연평론가)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Oedipus the Rex)>

인간 실존의 의미를 묻다

I. 소포클레스와 <오이디푸스 왕>

소포클레스(Sophocles, 495~405 B.C.)는 에스킬러스(Aeschylus, 525~456 B.C.), 유클리데스(Euripides, 480~406 B.C.)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 연극의 황금기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비극 작가이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그리스 사회의 귀족으로 살았으며,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에서도 영향력을 지녔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주로 연극계에 헌신하여 그리스 고대 연극의 발전을 선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에스킬러스를 이어 고대 그리스 연극계의 중심에서 고대 비극을 완성했으며 동시대 인물

이었던 에스킬러스, 유클리데스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작가로 불려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클리데스를 소포클레스와 경쟁했던 비극작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클리데스의 비극 작가로서의 가치는 훗날 18세기 이후에 다시 재평가된 것으로 소포클레스는 당시 고대 그리스 연극계에서 그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는 약 123편의 작품을 썼으나 현재 7편만 전해지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디푸스 왕(Oedipus the Rex)>도 정확하게 언제 그가 이 작품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작품이 훗날 고전 비극을 대표하

는 작품으로 평가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작품이 지니는 보편적인 주제와, 완결된 고전 그리스 비극의 형식에 힘 입고 있다. 더불어 이 작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소포클레스가 죽고 난 뒤 50여 년 뒤에 쓰여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 B.C.)의 저서 <시학(Poetics)>에 힘입은 바 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7번이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극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완성하고 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왕>은 당시 디오니소스 축제(The Festival of Dionysus)의 연극 경연에서 2등을 수상한 작품이었다. 연극 경연대회에서 25회나 수상했던 소포클레스의 연극적 경력에 비추어보면, 그리고 이 작품을 완전한 그리스 비극의 전형으로 제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주장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스럽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작품이 지니는 소재의 진부함 혹은 친숙함을 들어서 이 점을 설명한다. 즉, 이 작품은 이미 애스킬러스에 의해서 공연이 되었던 작품이고, 심지어 소포클레스와 같은 시대에 작품 활동을 했던 유피테스에 의해서도 공연이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그리스 비극 작가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소재를 취해 이를 연극으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시차 없이 개작된 소포클레스의 이 작품은 연극적 열의가 가득했

던 당시의 관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신선함이 떨어졌을 것이다. 즉, 당시 관객들은 이미 이 작품의 소재와 내용을 익히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존하지 않지만 유피테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선왕의 심복이 오이디푸스의 눈을 뽑아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자극적인 결말에 비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상대적으로 덜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정수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작품이 공연될 당시와 반 세기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철학적 관점에 맞추어 이 작품을 새롭게 분석하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관객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작품에 내재된 연극적인 특징과 작품의 구성에 대한 가치를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의 규범적인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이디푸스 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인용됨으로써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Aristotelian theater)”의 이론적 전형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연극사에 남게 된다. 또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휴머니즘과 실존적 질문에 대한 철학적 주제는 훗날 중세를 넘어 서구 사회의 르네

상스 시대와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부조리극을 포함한 새로운 연극적 주제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탐색되고 있다.

흔히 <오이디푸스 왕>은 소포클레스의 다른 작품, 즉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Oedipus at Colonus)>, <안티고네(Antigone)>와 더불어 3부작을 형성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되고 있다. 작품 내용의 전개상 세 가지의 스토리가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으나, 세 작품은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연극 경연대회에서처럼 4부작(teratology)-비극 3부작(trilogy)과 사티로스극(satyr-play)으로 이루어진-중 비극 3부작의 일부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세 작품은 독립적인 것이며,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고 다른 시기에 공연되었다. 이런 오해는 <오이디푸스 왕>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이디푸스가 살아남아 안티고네와 함께 퇴장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현존하는 3부작은 에스킬러스의 <오레스테아(Orestia)>가, 사티로스극(satyr-play)으로는 유피피테스가 쓴 <클리클롭스(Clyclops)>가 각각 유일하게 전해진다.

II. <오이디푸스 왕>: 인간 실존의 의미

고대 그리스 비극이 지니는 보편적 주제와 연극적 가치는 그 작품이 쓰여

지고 공연되었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차적으로 이해된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당시 그리스 사회는 인간중심의 세상을 구현하려 했던 시기이지만 실제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으며 온전하게 인간중심의 세상을 이루어냈던 시기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중심의 가치와 세계관이 불완전하게라도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제시한 인간중심의 이념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들이 말한 인간중심의 사고는 '휴머니즘(Humanism)'이란 단어를 통해서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인류사회에 영원한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중심 주의의 이상적 이념이 성찰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에서 발아한 이런 실존적 휴머니즘은 시대의 굴곡에 따라 왜곡되거나 무시되었지만, 서구 르네상스 이후 다시 되살아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외침은 당시 고대 그리스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 우리시대의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포클레스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하나는 인간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다. 비록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것을 인간이 피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로서 지니는 실존적 의미를 강조하려 한다. 즉, 그는 이 작품에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라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런 소포클레스의 관점은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세계관과 일치한다.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인식했던 사고가 그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은 자연스럽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려 했다는 점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 신들과 인간과의 유일한 차이는 ‘죽음’이었다. 신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같으나,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절대적이며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는 신은 죽음을 무기로 인간의 일에 간섭한다고 생각한다. 신이 인간에 간섭하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그들은 ‘운명’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운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어쩌면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신의 뜻을 거역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인식이었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오이디푸스 왕의 삶의 궤적에서 나타나듯이 소포클레스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경이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간의 구체적인 선택에 따른 삶이 결국은 신의 유도(guidance)와 영구불변의 법칙인 죽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포클레스는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삶과 신의 법칙 사이를 주목한다. 오이디푸스의 갈등도 여기서 연유한다. 운명을 거부하고 자유의지에 따른 삶을 추구한다는 오이디푸스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하늘의 법칙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의 힘이 자신의 삶의 앞에 점차적으로 나타나자, 오이디푸스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불안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내 이것은 그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오이디푸스는 이 거대한 운명 앞에 ‘순응’의 태도를 버리고 ‘대항’을 선택한다. 그는 굴하지 않고 강하고 타협 없는 의지로 자신에게 드리워진 운명과 마주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신성한 의지가 융합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시행한다. 이번 공연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라고 말하는 오이디푸스의 태도가 정체성을 갖고 신의 영역에 뛰어드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그가 보았던 세상이 더 이상 삶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오이디푸스는 두 눈을 찢러 버림으로써 내면의 세계로 귀의한다. 눈을 찢르는 장면을 통해서 소포클레스는 두 가지 뚜렷한 주제를 강조한다. 인간 세상의 실체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테레시아스(Teresias)의 상반된 존재 양식과 강렬하게 대조되어 오이디푸스로 하여금 인간 실존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철학적 사유를 즐겨했던 당시 그리스 귀족들의 생활로 미루어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세상의 실체였다. 이런 철학적 관점을 생각하면 더욱 오이디푸스의 눈을 찢르는 선택은 아름답다. 이번 공연에서 이오카스테(Iocaste)의 입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를 볼 수 있니?”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오이디푸스는 죽음으로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패배이며 인간 실존의 부정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는 단순히 운명의 거대한 힘 아래 놓여있는 나약한 인간의 종말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커다란 운명의 힘에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장엄하게 그려내려는 주제가 담겨있다. “신이여, 이제 만족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짓밟혔습니다.”라고 절규하는 오이디푸스의 대사

에서 저항하는 인간 실존의 모습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III. 한태숙의 〈오이디푸스〉

공연이 아닌 작품의 관점에서 볼 때 원작의 구성을 훼손하지 않고 극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각색의 과정에서 선택한 간결한 언어 때문이라고 본다. 원작이 지니는 장엄하고 우아한 운문조 연극 언어에서 탈피하여 명료하고 간결한 언어를 구사한 점이 극의 진행과 더불어 주제 전달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비록 원작의 시적인 맛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나 무대언어로서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각색이었다. 그리스 고전 비극이 갖는 지루함과 진부한 표현에 싫증을 내는 관객이라면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대사는 충분히 관객을 무대 위의 액션으로 유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원작보다 더 강화되어서 나타났고, 따라서 크레온(Creon)의 역할과 비중이 더 늘어났다. 원작도 이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그리스 사회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던 시기라서 더욱 이 작품에 나타난 정치적 함의는 작지 않다고 본다. 연극이 현대에서는 지적인 유희로서의 기능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의

연극은 상대적으로 정치와 종교적 기능을 지닌 ‘의식(ritual)’으로서의 역할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작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주제는 당시의 불안정했던 그리스 사회의 정치 질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태숙의 <오이디푸스>는 원작 속의 정치적 주제를 더욱 강화시켜서 현실의 상황을 그려내려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코레온을 정치적인 상대세력으로 인식하는 오이디푸스의 말과,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커진 크레온의 모습이 이런 연출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또한 원작과는 달리 이스메네(Ismene)와 안티고네(Antigone)가 오이디푸스와 함께 테베(Thebe)를 떠나지 않고, 크레온이 이들을 보살피겠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메시지와 관련하여 변화된 크레온의 성격을 말해준다. 물론 이는 오이디푸스의 자살이라는 극의 종결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오이디푸스와 크레온의 관계는 원작보다 더 정치적인 관계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은 오이디푸스의 죽음이다. 원작에서 오이디푸스는 아내 이오카스테(Iocaste)의 브로치(brooch)로 두 눈을 찌른 뒤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손을 잡고 테베를 떠난다. 이렇게 상이하게 처리된 마지막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원작에서의 오이디푸스는

‘죽음’을 그의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죽음은 곧 신에 대한 굴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 살아서 존재할 때에 인간은 신과 같아질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고대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인간과 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죽음’의 유무이다.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고, 인간 존재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끊임없이 돌을 굴려 올리는 시지푸스의 선택처럼, 오이디푸스도 곧 신이 정해놓은 궤도를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자유 의지에 충실 하는 순간 실존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과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특히 인간 실존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오이디푸스의 선택을 살펴보면 더욱 ‘죽음’은 오이디푸스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신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해석하여 인간이 가장 강하게 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게 죽음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아마도 한태숙의 <오이디푸스>는 후자로서의 해석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것은 패배가 아니며 ‘저항’의 의미가 담긴 자살이라고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크게 소포클레스의 의도와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항’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은 연출가 한태숙이 말한 바 대로 인간으로서의 ‘너는 누구이냐?’라는 ‘실존적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과 불안정성’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원작의 내용을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았으며 인간 실존의 문제라는 커다란 주제를 충실하게 그려냈다고 본다.

매
이
영
거